

사별가족모임과 관련된 사별가족 태도 연구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호스피스팀

정인순 · 심병용 · 김영선 · 이옥경 · 한선애 · 신주현 · 이종구 · 황수현 · 옥종선 · 김훈교

Abstract

The Attitude of the Bereaved Family Attending a Bereavement Memorial Service

In Soon Jung, Byoung Yong Shim, Young Seon Kim, Ok Kyung Lee, Sun Ae Han, Ju Hyun Shin, Jong Ku Lee, Su Hyun Hwang, Jong Sun Ok and Hoon-Kyo Kim

Hospice Team, St. Vincent'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uwon, Korea

Purpose: Bereavement Memorial Service has been held every year by the hospice team at St. Vincent's Hospital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the bereaved family who feel grief and mour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attitude of the bereaved attending at bereavement memorial service (BMS) and to find out the areas needing improvements to set up better memorial service.

Methods: Hospice team sent invitation card to 180 families of patients who admitted and passed away at hospice ward Nov., 2003~Oct., 2004. Among them 22 families attended the BMS meeting, which was held on 26th Nov., 2004. The researcher collected data from 22 families with 'Questionnaire' survey. Except identifying data and 2 dichotomy questions, we used open-ended questionnaire. 1 researcher conducted a telephone interview survey in 18 families who couldn't attend at BMS meeting.

Results: The median age was 56 (range 16~19) and there were 37 females and 3 males. They were patient's wife (22), mother (4), husband (5), daughter (4), mother-in-law (1), siblings (1), brother's wife (1). Duration after bereavement, 1~3 months (17) was the highest frequency. 36 families agreed 'the dead experienced the death with dignity'. The reason of agreement to the death with dignity was 'the patient died in preparation' (16), 'the patient died in well-being condition spiritually' (9), 'the patient died in comfort physically' (7). 4 persons thought the dead died with indignity. The bereaved defined 'the death with dignity' as follows: 'acceptance of death & death in spiritual well-being' (9), 'death in physical comfort condition' (7), 'the death in psycho-social well-being' (3), non-respondents (10). Most families (21) were still in difficulty to overcome bereavement grief. The answer regarding the method to overcome the difficulty was 'with spiritual sublimation' (13), 'with devotion of oneself in daily life' (10), 'with devotion to mourning as it is' (3). With regard to their attitude to invitation, 'having joy and thanks from hospice team' (21), 'grief' (4), 'suffering' (4). Toward the existence of hesitation about attendance at BMS meeting, the result as follows. Nonexistence of hesitation respondent(34), existence respondent (6), the reason for hesitation was various; 'the meeting reminds me of the suffering times',

'the meeting makes me to recall, and it will be likely to cry', and so on. The needs and feelings to memorial service meeting were various; 'it was meaningful time', 'it was good to recall about the dead', 'more meeting annually' and so on. In respect of the most difficulty after bereavement, in attendant family, 'depression' (10) was the highest frequency, whereas, in non-attendant family, the most difficult thing was 'financial problem/role difficulty' (6).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e rate of attendance was high in bereaved whose bereavement duration 1~3 month. Most of bereaved were still suffering from bereavement grief within 1 year. Although most families didn't hesitate and felt positive mood to invitation, the rate of attendance was low. Comparing with two groups between attendant family and non-attendant, the latter felt more difficulty in 'financial problem/role difficulty', on the other hand, the former felt difficulty in 'depression'. Hereafter, the additional study about the factor relating to these attitude and needs of the bereaved relating to memorial service will be necessary.

Key Words: Hospice, Bereavement, Death

서 론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호스피스팀은 호스피스병동에서 사망한 환자가족들의 비탄감과 애도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지지를 하고, 그들이 보다 더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 보다 빨리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도움이 되고자 '사별가족모임 및 추모제'를 해마다 실시해 왔다. 과거 호스피스에서 사별가족들이 겪는 어려움, 욕구, 대처양상, 품위 있는 임종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사별가족지지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별가족들의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사별가족모임에 참석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겪는 신체적, 심리적, 영적, 사회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대처방법과 사별가족지지프로그램에 대한 인식도와 요구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품위 있는 임종에 대한 견해를 파악해보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또 저자 등은 사별 가족들이 사별 후 슬픔을 극

복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여, 향후 실시될 한국인 정서에 적합한 사별가족지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12개월 동안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입중한 사별가족을 대상으로 병원 의무기록에 기록된 주소로 180부의 초대장을 발송하였고, 2004년 11월 26일 '제3회 사별가족모임 및 추모제'에 참석한 사별가족 22가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소불명 및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42가족을 제외한 사별가족을 대상으로 연구자 1인이 전화설문을 시행하였다. 전화 시도한 가족 수는 116가족이었고, 연결된 가족 수는 18가족이었다. 질문구성은 양자 택일형 질문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개방형 질문으로 하였고, 응답 내용에 대해서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 카테고리화 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결 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총 40명의 응답자 중 여자가 37명, 남자가 3명이었고, 연령은 40대(11명), 50대(10명), 60대(10명), 70대(7명), 20대(1명), 30대(1명)순이었다. 교육정도는 고졸(15명), 초졸(10명), 대졸(6명), 중졸(6명), 무학(3명)이었다. 종교는 천주교(22명), 무교(7명), 개신교(5명), 불교(5명), 기타(1명)순이었다. 고인과의 관계는 아내(22명), 남편(5명), 어머니(4명), 딸(4명), 시어

머니(1명), 아들(1명), 형제자매(1명), 며느리(1명), 형수(1명)이었다. 입종 후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1~3개월(17명), 4~6개월(12명), 7~9개월(4명), 10~12개월(7명)순이었다.

2. 고인의 입종에 대한 인식(품위 있는 입종과 관련하여)

36명이 고인이 품위 있는 입종을 맞이했다고 응답해주었고, 4명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고인이 품위 있는 입종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36명 중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Table 1. The Reason Behind Death with Dignity

분 류	응답내용
신체적으로 편안한 입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지막 순간까지 힘들었지만 마지막 눈뜨시고 바로 숨을 거뒀음. 2. 편안하게 입종을 하셨기에. 3. 고통 없었다. 4. 편안히 가심.
준비된 죽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에서 자기 소지품이며 가족의 추억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2. 자기 자신이나 과거에 있던 일을 용서바라고 식구들을 잘 챙겼다. 3. 가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으며 본인의 고통을 가족에게 내색하지 않았음. 4. 가족과 함께 조용히 호스피스병동에서 사망. 5.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보고 싶은 얼굴을 보고 떠났다. 6. 호스피스선택을 잘해서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7. 준비되어 돌아가셨다. 본인과 가족모두 8. 준비된 죽음이었다. 9. 가족과 화해할 수 있었다. 준비된 죽음이었다. 10. 오래도록 투병 생활하셔서 가족 모두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 11. 죽음을 받아들이고 갔기에 12. 죽음을 받아들이고 가족 곁에서 편안히 갔기 때문에 13.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었다. 14.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15.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식이 있는 자리에서 떠남 16. 죽음을 알고 간 것 같아서
영적인 안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소에 평화를 느낀다고 말했기 때문 2. 마지막으로 받으실 성사 다 받으시고 죽음을 최선을 다해 받아들임. 3. 기도 속에서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입종을 하셨기 때문 4.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임. 5. 기도병동에서 신부님 축복받고 깨끗하게 입종했기 때문에 많이 받고 편안하게 6. 아픔에서 해방되어서
기 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르겠다. 2. 무응답

는 '준비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편안한 임종을 하셨기에'가 7명, '영적으로 편안하게 임종했기 때문에'가 4명이었고, 그 이유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가족이 9명이었다. 전체 응답자들이 실제 기록한 응답내용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3. '품위 있는 임종'의 정의에 대한 견해

품위 있는 임종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사별가족들의 견해는 Table 2에서와 같이 다양하게 기술되었다. 그 기술된 내용을 크게 신체적·영적·심리 사회적 안녕의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전체 응답자 중 '영적인 안녕'한 상태에서의 임종이 품위 있는 임종이라는 견해는 9명, '신체적 안녕' 7명, '심리사회적 안녕' 7명 순이었고, 무응답자가 16명, 품위 있는 임종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

다'라는 의견이 1명 있었다. 무응답자가 16명으로 가장 빈도수가 높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보아 품위 있는 임종에 대한 개념 이해 정도가 높지 않은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4. 사별 후 슬픔을 극복하는 데 소요된 기간

'아직 슬픔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가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3개월 미만(9명), 무응답(7명), 1년 미만(2명), 6개월 미만(1명) 순으로 응답되었다.

5. 사별 후 가장 어려운 점

사별가족모임에 참석한 가족들은, 사별 후 가장 어려운 점이 '우울감'(10명), '외로움'(7명), '그리움'(1명), '경제적/역할상 어려움'(4명), 무응답(6명)이었고,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에 대한 설문결과를,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역할상 어려움'(6)이었고,

Table 2. Opinions on Death with Dignity

분 류	응답내용
1. 영적인 안녕	1.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 2. 죽음을 받아들이고 기도 안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 3. 하느님을 잘 받아들이고 편안히 눈감는 것. 4.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가는 것. 5. 정리할 시간을 갖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6.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것.
2. 신체적 안녕	1. 잠자들 조용히 숨을 거두는 것. 2. 깨끗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가는 것. 3. 편안한 모습으로 가는 것. 4. 고통이 없고 편안한 상태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가는 것. 5. 아프지 않고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가는 것. 6. 모르는 듯 아프지 않고 가는 것.
3. 사회심리적 안녕	1. 주변정리를 잘 하는 것. 2.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보고 싶은 얼굴을 보고 떠나는 것. 3.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이함. 4.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임종하는 것. 5. 죽음의 시기를 어느 정도 안다면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겠다. 6. 할아버지(남편)처럼 자신이 갈 것을 알고 정리하고 싶다.
4. 기타	1. 무응답 2. 모르겠다. 3. 어렵다.

‘외로움’(5명), ‘우울감’(3명), ‘후회감’(1명), ‘고인에 대한 원망감’(1명),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2명)로 나왔다.

6. 사별 후 어려움에 대한 극복 방법

이에 대한 응답은 Table 3에서와 같이 기술되었다. 영적 승화(13명), 일상생활에 몰두(10명), 애도과정 몰입(3명)으로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의견이었고, 무응답도 15명이었다.

7. 병원으로부터 사별가족모임의 초대장을 받았을 때의 느낌

이에 대한 응답에는 반가움과 고마움(21명), 슬픔

(4명), 괴로움(4명), 무응답(11명)으로 나타났다.

8. 사별가족 모임 참석에 대한 망설임의 유무와 그 이유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34명, ‘망설였다’가 6명으로,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고, ‘망설였다’의 이유로는, ‘투병생활 생각 때문에’, ‘생각이 날것 같고, 너무 울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신이 없었다’, ‘고통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는 것 때문에’, ‘병원은 다시 보기도 생각하기도 싫으므로’ 등의 의견이었다.

Table 3. Methods to Overcome the Grief

분 류	응답내용
1. 일상생활에 몰두	1. 일을 정신없이 한다. 2. 운동을 다닌다. 3.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4. 아기를 돌보므로 위안이 됨 직장생활에 적극적으로 함. 5. 많이 걷고 다녔다. 6. 고인을 모신 납골당을 찾거나 미사에 참석한다. 7. 열심히 생활함. 8. 실생활을 더욱 열심히 한다.
2. 영적 승화(신앙생활)	1. 믿음생활, 교육, 음악 등 2. 신앙생활과 봉사활동 3. 기도합니다. 4. 하느님께 맡기고 기다림 5.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 6. 기도, 성당에 주로 가 있다. 7. 기도한다. 8. 연도를 바친다. 9. 기도를 더욱 열심히. 10. 기도로 극복함. 11. 산소에 가족들이 함께 가서 위로받음.
3. 애도과정에 몰입 (계속 슬퍼함)	1. 그냥 매일 울고 있다. 2. 아직도 답은 없고, 고독할 때까지(생각) 계속 생각하렵니다. 억지로 잊지 않으려구요 3. 계속대화를 나눔(고인과의 대화) 4. 집에 혼자 있을 때 우울증으로 자꾸 빠진다.
4. 기타	1. 무응답 2. 없음

9. 사별가족 모임에 참석한 후의 소감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의견, '사별가족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대해 감사한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있었고, '고인에 대한 회상을 할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다', '슬픔을 제대로 터트리지 못했는데, 실컷 울게 되어 정화의 기회가 되었다',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강론 및 연미사 봉헌에 대해 영적으로 만족감을 느꼈다', '비슷한 슬픔을 가진 가족들과 위로감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다', '고인을 따라 죽고 싶었던 마음이 고인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고인을 위해서 앞으로는 너무 잡고 있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별가족모임이 일년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한다', '한편은 슬프고 한편은 기쁘다', '고인을 추모하는 모임을 가져주셔서 감사한 반면 다시금 마음이 아려서 괴로웠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고 찰

본 병원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은 사별가족 중 사별한지 1년 이내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사별가족 지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된 사별가족모임 및 추모제에 참석한 가족들과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초대장을 받고 참석의사가 있었던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별가족 의식 및 사별가족모임과 관련된 태도를 조사한 본 연구는, '고인이 품위 있는 임종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는 가족이 다수라는 점, 품위 있는 임종이었다, 아니었나를 판단하는 이유 중 준비된 죽음'과 '편안한 임종'에 대한 의미 있는 인지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립암센터 삶의 질향상연구과에서 실시한 품위 있는 죽음과 호스피

스·완화의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1]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음'(27.8%)과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26.0%)이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또 다른 생각을 보여준다.

품위 있는 임종의 정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품위 있는 임종의 요건을 신체적·영적·심리사회적 측면에서의 '안녕'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점을 알 수 있다. 개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진 조사라는 제한 점도 있지만, 품위 있는 임종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무응답자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점과 이해가 어렵다는 견해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품위 있는 임종에 대한 개념에 관하여 인지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고 미루어볼 수 있겠다.

본 조사에서, 사별 후 슬픔을 극복하는 기간에 대한 질문에서 참석 가족과 전화설문 조사 응답자 전체를 합쳐서 '아직 슬픔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21명)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슬픔은 사별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으로, 학자들은 고통 없이 고인을 생각할 수 있을 때를 슬픔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라 하였다[2]. 예측되는 정상적 슬픔의 기간은 6~8주에서 2년 내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사별 후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한 조사에서 '외로움'(15명), '우울감'(14명)이 가장 많았고, 경제적 문제, 손자녀 양육이 다음 순이었다.

선행연구는 호스피스대상자가 환자와 환자 가족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말기 환자만을 중심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경향이있다[3]. 그러나 사실상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환자 사망 이후 겪는 슬픔은 극심하다.

사별은 중요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사망에 뒤따라 생겨나는 과정이다. 비탄(grief)은 사별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고, 애도(mourning)는 grief (비탄)

에 대한 신체적 표현이다. 심리사회적 변화는 그들의 세계가 갑자기 바뀐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별 후 뒤따르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기간 동안, 사별상담가는 가족들이 비탄을 겪는 단계를 통하여 가족을 돕는 데 큰 가치를 둔다[4].

병원으로부터 사별가족모임의 초대장을 받았을 때의 느낌에 대한 응답에는 '반가움과 고마움'(21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슬픔과 괴로움이 들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사별서비스는 환자의 사망 후 1년까지 제공된다. 기념적인 서비스(memorial services)는 분기마다 1번씩 1년에 4번 또는 1년에 한 번 열린다. 호스피스 스태프와 사별가족들은 고인을 기념하는데 함께 참가하고, 상징적인 의식은 종결과정을 도울 수 있다[5].

이렇듯, 사별 후 슬픔을 극복하는 기간은 1년 이상 장기화 될 수 있으며, 고인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상징적인 의식으로서의 기념적인 서비스는 사별 서비스의 마지막 단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기념적인 서비스로서의 사별모임 및 추모제는 한편으로는 슬픔과 괴로운 감정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고인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기회로서 긍정적인 의미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사별가족모임에 참석한 후의 소감에 대한 의견으로서 '사별가족모임이 일년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한다.'라는 응답처럼 사별서비스의 일환으로 사별 후부터 1년까지 1회 이상 제공되어지는 것에 대한 요구도 있으며 1년에 1회 이상 사별모임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사별가족모임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통해 더 고려될 수 있음이 기대된다.

사별 가족 모임 참석에 대한 망설임 유무와 그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는 '망설이지 않았다'(34명)가 '망설였다'(6명)의 의견보다 훨씬 더 많았다. 망설이게 된 이유로는 '고통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는 것', '생각이 날 것 같고, 너무 울 것 같아서', '투병

생활에 대한 생각 때문에' 등의 태도가 조사되었다. 사별모임 참석자들 중에서는 '망설이지 않았다.'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1년 동안의 전체 사별가족의 수에 비하면 참석 가족의 수가 과반수에 못 미치며, 사별반응에서 회복과 이탈에 이르기 어려움이 그 이유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해 '품위 있는 임종'에 대한 개념적 이해의 기회를 넓힘으로써 품위 있는 임종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준비된 임종'에 대한 가치가 사별가족들에게 있어 의미를 지니므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의 호스피스 서비스가 환자 가족들에게도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에 더욱 가치를 두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다.

사별서비스로서 사별가족 모임 및 추모제는 사별가족들에게 고인을 기념하는 상징적 의식으로서 가족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고, 모임 참석에 대한 망설임에 빈도는 매우 낮다. 그러나 사별가족모임의 참석 가족 수는 총 임종가족 수에 훨씬 못 미치는 바, 향후 연구에서 사별가족 모임에의 참석을 망설이는 이유에 대한 추가 연구를 하고, 사별가족모임에서 가족들이 정화감과 비슷한 슬픔을 가진 가족들과 공유감을 느끼는 자리라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시금 슬프고 괴로웠다는 등의 의견이 있는 데 대해서는, 향후, 사별가족모임의 내용구성에 있어서 고인에 대한 기념과 추모를 다루는 정도의 깊이와, 긍정적 감정을 다루는 정도의 깊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으면 하고 기대해보았다. 이러한 추후 추가적 연구를 통해서 사별가족모임에 대한 요구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목적: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호스피스팀에서는 사별가족들에 대한 지지로서 해마다 사별가족 모임 및 추모제를 실시해왔다. 호스피스 환자 및 사별가족의 어려움, 욕구, 대처양상, 품위 있는 임종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사별가족모임에 참석한 가족들의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기가 어려웠다. 최근 1년 이내에 사별 경험이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견해조사를 실시하면서, 향후 사별가족지지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와 보완점 파악,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방법: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12개월 동안 성빈센트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한 사별가족 180가족들에게 초대장을 발송하였고, 사별가족모임에 참석한 22가족에게 설문지 조사하였고, 전화연결된 가족 18가족에 대해서는 연구자 1인이 전화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총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56세(16~79세)였고, 남자(3명), 여자(37명)이었다. 고인과의 관계는, 아내(22명), 남편(5명), 어머니(4명), 딸(4명), 시어머니(1명), 아들(1명), 형제자매(1명), 며느리(1명), 형수(1명)이었다. 임종 후 경과기간은 1~3개월(17명), 4~6개월(12명), 7~9개월(4명), 10~12개월(7명)이었다. 고인이 품위 있는 임종을 했다고 생각하는 가족은 36명이었고, 4명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품위 있는 임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준비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16명)가 가장 많았고, '편안한 임종을 하셨기에'(7명)가 다음으로 많았다. 품위 있는 임종의 정의에 대한 견해는 '영적으로 안정한 상태에서 임종하는 것'(9명), '신체적 안녕'(7명), '심리사회적안녕'(7명), 무응답자(16명)이었다. 21

명의 가족들이 '아직은 슬픔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였고, 사별 후 가장 어려운 점은, 참석가족들은 '외로움'(7명), '우울감'(10명)이나, 비참참가족들은 '외로움(7명)', '경제적 문제/역할수행상의 어려움'(7명)의 빈도였다. 대처방법에서는, '영적 승화'(13명), '일상생활에의 몰두'(10명), '애도와 정에의 몰입(계속 슬퍼함)'(3명)으로 응답하였다. 병원으로부터 사별가족모임의 초대장을 받았을 때의 느낌에 대해서는 '반가움과 고마움'(21명), '슬픔'(4명), '괴로움'(4명), 무응답(11명)이었다. 비참참가족들은 '반가움과 고마움'(4명)이었다. 사별가족 모임 참석에 대한 망설임의 유무와 이유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않았다'(34명)가 '망설였다'(6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별가족모임에 참석한 후의 소감, 개선 사항, 아쉬운 점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사별가족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대해 감사한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있었고, '고인에 대한 회상을 할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다.' '사별가족모임이 일년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한다.', '한편은 슬프고 한편은 기쁘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사별 후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참석가족은, '우울감'(10명), '외로움'(7명)의 빈도가 높았고, '그리움'(1명), '경제적/역할상 어려움'(4명), 무응답(6명)으로, '우울감'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참참가족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역할상 어려움'(6명), '외로움'(5명), '우울감'(3명), '후회감'(1명), '고인에 대한 원망감'(1명),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1명)라고 답하였다.

결론: 호스피스 서비스를 경험한 사별가족들은 고인이 품위 있는 임종을 맞이하였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높았고, 그 이유가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였다. 이는 호스피스 서비스가 품위 있는 임종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 조사에서 임종 후 1~3개월 이내의 사별가족들이

사별모임에의 참석빈도가 가장 높았다. 사별 후 슬픔을 극복하기에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가장 많았다. 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이고, 이에 대해 영적 승화, 일상생활에 몰두로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이나, 애도과정 자체에 몰입한다는 견해도 있었고, 사별가족모임에 대한 반응은 반가움과 고마움이 높았으면서도, 모임참석에 망설이지 않는 경향이 높으면서도 실제 참석도는 전체 임종자 가족에 비해 낮았다. 사별가족모임에 비참석한 가족들은 참석한 가족들보다 경제적/역할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경향이나, 응답자 전체 수가 적기에 일반화를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사별가족 모임에의 참석에 대한 망설임 요인, 요구도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추후 연구 과제로 삼

아야겠다.

참 고 문 헌

- 1) 윤영호, 이영선, 남소영, 채유미, 허대석, 이소우 등. 품위 있는 죽음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2004; 7:17-28
- 2) 김은경. 호스피스센터에서 암으로 사별한 가족의 애도와 대처양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3) 안유진. 호스피스케어를 받고 있는 암환자 가족의 심리사회적인 욕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03
- 4) Dunlop RJ, Hockley JM. Terminal care support teams.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5) Walter B, Forman JA, Kitzes RP, Anderson DK. Hospice and palliative care concept and practice.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2003